

## ■ 2023년도 창작의과정 #공공예술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 창작의과정 #공공예술
- 회의일시 : 2022년 11월 30일(수요일) 14:00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3층 세미나 1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대성, 박이창식, 변길현, 양혜원, 정윤희

<창작의과정#공공예술(舊 아르코 공공예술사업 연구지원형)>은 공공예술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사전 연구단계 지원을 통해 내실있는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예술분야 공공성과 관련한 담론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공공예술 사업실현을 위한 사전연구활동 및 시범사업, 공공예술 관련 사례연구, 사회문제, 지역문제 심층 연구, 공공예술에 대한 온오프라인 비평활동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창작의과정#공공예술사업>은 사업의 실현가능성(30%), 사업 우수성 및 공공성(50%), 사업 기대효과(20%)라는 심의기준에 따라 접수된 26건 중 10건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창작의과정#공공예술사업>의 경우 전쟁, 기후위기/생태환경, 여성, 노동, 장애, 소수자, 도시/지역의 특정 공간이나 역사, 전통 등 다양한 주제를 담은 사업이 접수되었으나, 동 지원사업의 취지에 따라 공공 이슈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이에 접근하는 예술적 관점이 명확하며, 새로운 시도를 담고 있거나 현 시점에서의 시의성이 높거나, 확장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개인 또는 단체 차원의 단순 창작작업의 성격이 강하거나, 기존에 하던 활동이나 행사의 단순한 지속이나 확장을 위한 사업 신청,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참여자가 확정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창작의과정#공공예술사업>의 지원금액이 최대 1,000만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완성도 높은 사업계획서들이 제출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되며, 동 지원사업 트랙이 공공예술사업 중에서도 새로운 실험을 좀 더 부담없이 자유롭게 해볼 수 있는 사업트랙이라는 점에서 향후 지원 건수나 지원 액수가 좀 더 상향 조정되면 좋겠다는 심사위원들의 제언이 있었다.

심의위원 일동